

“도농 균형발전·복지확대 가속화 할 것”

민선 8기 3년

김산 무안군수

김산 무안군수가 2일 “군민과 함께 무안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왔다”며 민선 8기 3년차 주요 성과를 직접 밝혔다. 김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안의 더 큰 도약과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안군은 민선 8기 들어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 실현을 목표로 지역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 균형발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소비 여건과 12·29 여객기 참사 등 정국 불안 상황 속에서도 2022년 182억원, 2023년 89억원 규모의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94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오룡시장과 남악시장, 청계면 목포대 후문 일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침체된 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
군민 의견 반영 정책 적극 추진

하고, 무안전통시장에는 ‘황토골 토요 야시장’을 운영해 지역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도농균형발전도 민선 8기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신도시 오룡2지구에는 건강지원센터를 포함한 오룡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진행 중이며, 기후대응 도시숲과 순환버스 도입 등 주거·정주 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수축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강화했다. 무안군은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맛달무안’을 개발하고, 2024년 개설한 ‘맛달무안몰’은 1년 만에 3만명 이용, 11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김산 무안군수.

이밖에도 무안군은 지난해 보건소를 신축 이전해 통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합문화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수련관, 청년센터, 작은영화관

등 복지·문화시설을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해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 군 단위 전국 5위, 올해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전국 12위를 기록하며 행정성과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무안의 강점인 항공·물류 인프라와 신도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남악·오룡권역의 전략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스마트팜과 기후대응형 농업 전환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개발 등 ‘군민 중심 행정’의 기초를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군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며 “더 살기 좋은 무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진도군, 다중이용시설 환경 검사
관내 복지시설 등 15개소

전라남도 진도군이 여름철을 맞아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환경 수계 검사를 진행했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 건물, 노인복지시설,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 급수시설, 욕조, 분수 등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체내에 흡입되며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마른기침, 근육통, 오한 등이 있으며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발생 위험도가 높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도군 보건소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시설에 대해 즉시 청소와 소독 조치를 시행하고 이후 균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재검사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집중 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레지오넬라증은 다중이용시설의 수질 관리를 소홀히 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인공지능 코딩 프로그램 운영
목포어울림도서관

목포어울림도서관은 2025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코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해 진행하며 7월과 8월로 나누어 운영한다.

19일 1회차 교육은 로봇 조립 및 움직임 제어를 제어하는 코딩 프로그램을 지도할 예정이다.

8월24일 2회차 교육은 할로코드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및 센서 기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으로 1회차 3일부터 17일까지, 2회차 8월7일부터 21일까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 내 QR코드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초등 1~3학년은 부모 동반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http://www.mokpolib.or.kr>)을 확인하거나 목포어울림도서관(061-270-1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AI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완도군, ‘스마트 우편함’ 운영
민원서류 체계적 관리·보안 강화

전라남도 완도군은 민원서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 최초로 ‘스마트 우편함’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스마트 우편함은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서류나 일반 우편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폐 방식을 열쇠가 아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전환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췄다.

우편함은 사전 등록된 담당자만 열 수 있으며, 개폐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돼 무단 열람 방지 및 문서 분실,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스마트 우편함 설치로 개인정보 유출 차단 등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완도군의 설명이다.

완도=정태영 기자



목포교도소, 장학금 전달
무안중 재학생 5명 대상

목포교도소는 지역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무안중학교 재학생 5명에게 총 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장학금은 목포교도소 소속 직원들이 매월 적립하는 사랑나눔회 기금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학업에 성실히 임하는 학생 중 무안중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전달하고 있다.

목포교도소는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나눔 실천을 위해 소외이웃과 사회복지단체를 대상으로 위문금 전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남진 소장은 “직원들의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훌륭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교정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진도군 보건소가 운영중인 ‘돌봄 놀이터’에 지역 초등학생들이 참여해 신체활동 학습을 받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전라남도 진도군 보건소가 성장기 아동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2일 진도군 보건소에 따르면 돌봄 놀이터는 사전에 신청한 3개 초등학교(진도서, 고성, 의신)에서 돌봄교실을 이용

하는 1~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영양사가 진행하는 놀이형 영양교육과 운동 전문가가 진행하는 신체활동을 오는 7월까지 주 1회씩 총 14주간 운영한다.

놀이형 영양교육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스티커북을 활용해 채소와 과일 섭취

취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며 신체활동은 전통 놀이, 협동 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동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에서 스스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통해 아동들이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아동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무안군, 황토골야시장 문 열어

5일 오후 6시

전라남도 무안군은 오는 5일 오후 6시, 무안전통시장에서 ‘2025 황토골 토요야시장’ 개장식을 시작으로 10월5일까지 매주 토요일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무안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만의 이야기와 문화를 살려 문화관광 특화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획됐다.

황토골 토요 야시장은 △지역 특산물과 먹거리 △문화예술공연 △체험형 콘텐츠 △주민참여 이벤트가 어우러진 복



합형 테마장터로 이는 전통시장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현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시장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장은 맛집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미식존’, 다양한 체험과 플리마켓이 열리는 ‘체험존’,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연존’으로 구성됐고 상인회와 사업단이 공동개발한 특화상품도 방문객을 맞이한다.

개장식은 오는 5일 온라인 서포터즈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방문객 대상 기념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농가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농가의 시름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상인회 주도하고 주민참여로 완성이 되는 야시장이 무안의 대표 콘텐츠가 되고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진일보
@ji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i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